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필식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시간. 여기 3명의 후보가 있다. A후보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어울리고, 두 명의 정부(情婦)를 두었다. 졸업배를 피우고, 하루에 8~10잔의 마티니를 마신다. B후보는 학창시절 골고루 나체 접수를 받았고, 정오까지 늦잠을 잔다. 대학 시절 아편에 손을 댄 적이 있으며 밤마다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신다. C후보는 학창시절 우등생이었고, 훈장을 받은 전쟁영웅이다. 채식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를 마신다. 불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취미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

각 잠힌 사회 보단 말랑한 사회를

당하였다.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과 신세대 그룹 2PM의 재범이 그 비운의 스타들이다. 정수근 선수는 음주 폭력으로 무거운 실격당했다가 그라운드에서 복귀하자마자 다시 음주 소동에 연루돼 구단에서 영구 퇴출명령을 받았다. 재범이었던 재범은 철없던 연습생 시절, 미국의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친구들에게 ‘한국인이 싫다. 내가 램을 엉망으로 해도 잘한다고 한다. 멍청이 같다’고 썼던 것이 몇 년 만에 알려져 그룹에서 탈퇴하고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일반인의 동정을 받는 공인은 사생활도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사고 전력이 있는 선수가 또다시 음주로 구단의 명예에 누를 끼쳤을 때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를 이유로 야구를 못하도록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철없는 아이돌이 한국인이 싫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런 못된 것”하며 야단치고 안티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재주를 퍼부으며 한국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각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었다. 과연 사생활 문제로 공인을 퇴출시킬 만큼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도덕적인가. 그렇다면, 개개인이 할런, 지연, 학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정 때문일까. 정이 있는 민족이라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왜 기부분화는 착박한 것일까. 우리의 정은 왜 자신의 연줄에는 약해지면서도 남에게는 냉정해지는 것일까.

혹시 우리 마음속의 잣대가 이중적인 것은 아닐까. 부자가 축재한 데는 뭐가 비리가 있을 거라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공직자의 부등산 투기는 비판하면서 나의 부등산 투기는 재

테크라 생각하며, 명문대 출신을 우대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명문대학에 들어가 주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깃발하고 차별받던 역사에 분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소국 출신 외국인을 차별한다. 마치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정대준의 노랫말처럼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듯이’ 말이다.

옛말에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 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매섭게 하라는 가르침인데 어찌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만의 착각일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 사회가 잡힌 각을 동글게 펴서 좀 더 너그럽고 유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을이다. 사색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무엇보다 결실의 계절이다. 들관과 벼가 결실하게 익어가고, 여름 날 흘렸던 땀의 가치가 결실을 맺게 된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지나온 길에 대한 반추와 사색의 시간을 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독서와 사색은 각 잡힌 사고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통글게 차오르는 저 달처럼, 혹은 가을 햇살 속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중신대학교 이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금호타이어 勞使, 이젠 모두 달라져야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12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54.2%의 지지율로 합의안을 통과 시켰다. 노사(勞使)가 125일만에 결전 지투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회사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회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짐되던 일이다. 직장폐쇄와 전면 파업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노사가 끝까지 인내하며 ‘과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은 ‘상생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한 단계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노조로서는 이번 협상안을 두고 ‘사실상 백기 투항’이라는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실제로 이번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45%에 이른 것은 아직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협상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물론 사측도 잠재해 있는 노조원의 불만과 패배감을 회사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회사 측은 앞으로 뒤늦어진 노사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조와의 ‘동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투명한 경영으로 노조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깨어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권리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의 길로 나아가고,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금호타이어가 안팎에서 돌아차고 있는 거센 도전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고흥 우주클러스터’ 구축이 성공하려면

고흥을 ‘동북아 우주항공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가 밝힌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따르면 2014년까지 실용위성급 우주센터를 신축하고 위성부품센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비행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우주항공 특화기업 등 연관 기업 유치에 주력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서비스포츠 국제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지역을 우주항공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남도의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항공우주산업은 항공 우주 산업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응용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제해 예방 및 진단, 신소재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성

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이미 산업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우주항공산업 법안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전 세계 우주인들의 최대 잔치인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IAC 2009 Daejeon)’를 개최한다. 경남 또한 KAI(항공우주산업)를 중심으로 산업체 유치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과 전북 역시 우주항공 산업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사업 성과를 좌우한다. 고흥 우주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無等鼓

최근 경찰과 각 지자체가 CC(폐쇄회로)TV 설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범죄 수사 현장에서 CCTV가 보여준 눈부신 활약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차량 내부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얼굴을 공개하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출석한 것이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에서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CCTV였다. 묘역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유골 함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고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본 시민의 제보로 범인은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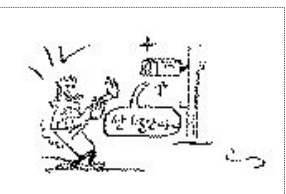
연쇄살인범 강호선 사건은 CCTV 수사의 종합판이었다. 도로변의 고성능 CCTV는 여대생을 태우고 가던 승용차 번호판을 선명하게 저장했고, 집 주변 CCTV는 그의 행적을 확인시켜줬다. 울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가정집 역대 현금 절도나 초등학생 공가총 살해 사건에서도 CCTV는 ‘명탐정’이자 범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의 방범용 CCTV는 122대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고, 인구 1만명당 설치율도 1.4대로 대도시 중 가장 낮아 확대 요구가 높다.

하지만, CCTV는 무작정 확대할 경우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00만대 이상 설치된 영국의 경우에 완전히 거러야 ‘실례’를 하거나, 쓰레기통을 집 밖으로 잘못 내놓은 행위까지 CCTV로 적발하고 있다. 도심 전역에 24시간 감시카메라가 돌아다 보니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찍힐 수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CCTV는 강력 범죄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 따라서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법률 마련, 독립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CCTV



기고

유종성



“아니! 광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예전에 내가 살던 광주가 아니네, 운전을 하면서 오다보니까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도시가 많이 변하여 상진백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실감나네!” 외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광주에 연고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인들이 광주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광주가 1등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연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수출증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 광주가 이제는 광산업을 포함한 3대 주력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5대 신기술융합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도시, 수출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2001년 우리의 수출액이 31억불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3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부산 68억불보다 많은 71억불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말에는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망의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셋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 정부나

빛고을 확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1등 광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비 확보 예산액이 예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선 2기인 2001년 국비확보액이 4천 5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3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1조 6천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예산 2조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둘째,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생산도시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광주의 3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광산업을 초창기 47개였던 업체가 최근에는 327개 업체로 대폭 증가했다. 매출액도 2000년도에 1천100억원이던 것이 지금은 1조3천억원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예전에는 산업단지 시설이 빈약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 복지국가에서조차 감탄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사업 등은 1등광주 건설을 앞당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추후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세계적인 도시와 당당히 경쟁하여 승리한 2015세계U대회 유치 성공의 쾌거를 되새겨보며, ‘2015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1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1등 광주 건설을 위하여 앞만 보고 뛰어왔던 것처럼 ‘1등 광주’라는 소중한 유산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줄 그날까지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145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가슴에 안고 전력투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 회계과장>

인도 주행 오토바이, 경찰 단속 필요

얼마 전 나는 인도에 뛰어들어 택배 오토바이를 피하다 인도에서 작업하던 철재간판 모서리에 발을 살짝 걸린 적이 있었다. 만약 조금만 가까워서 강하게 부딪혔다면 발등이 크게 찢어져 큰 부상을 당할 뻔 했다.

오토바이는 황하니 달아나버렸고 간판 제작업자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는가. 오토바이에 치이기 싫으니 깜짝 놀라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주지만 ‘왜 경찰은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에 다니면 안될 뻔더러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오토바이들은 인도를 오토바이 전용도로처럼 질주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의 인도에서는 오토바이를 구경조차 못했다. 일본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탓이며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통

법조칼럼

김종복



광주지방법원은 오래 전부터 법원권 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올해 8월에만 252명의 아이들(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법원을 방문하였다. 아이들이 법원견학을 오면 법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다음, 실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방청하게 하고, 어린이용 법복을 입은 모습들 기념촬영 해주고, 법원을 소개하는 동영상 방영한 다음,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기를 넘겼다. 또 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판사가 된 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잘 챙겨 듣고,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다는 등등의 설명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문득 필자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찌 되지’라고 말이다. 판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 판사의 봉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분쟁을 해결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명감’이 나를

아이들에게서 사명감을 배운다

필자는 광주지법을 홍보하는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올 초부터 도입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친진난만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신선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의 질문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다양한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학 팀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판사님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이다. 가장 난감한 질문이다. 또 다른 질문은 ‘판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이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지만, 판사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혹시라도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적으로 3심 재판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심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위

판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판사가 되고 나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여는 봉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해 보니 나름대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사명감보다는 일상적으로 재판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듯 했다.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을 리 만무한 어린 아이들에게서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업무인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업무인지,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업무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요즘엔 판결 선고료 코앞에 두고도 아이들의 질문이 자꾸 떠올라 다시 한 번 기록을 뒤적거리면서 잘못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한 번 더 꼼꼼히 사건을 챙겨보게 된다. 아이들에게서 판사가 가져야 할 사명감을 다시 배운 것이다. <광주지법 판사>

지나친 교육열이 부른 어린이 유사자폐증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사자폐증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들이 그런 걸 잘 모른다. 한마디로 현대 어린이 절반이 80%가 부모의 무분별한 조기교육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증세가 생긴 것이다. 부모들과 얘기해보면 아이들에게 슈퍼비비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어릴 때 영어를 튀워준다고 하루 네댓 시간 이상 초인적인 영어교육을 한다.

이렇게 시달린 아이들은 후천성 유사자폐증, 즉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다. ‘공부가 에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정이 아니다.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과도한 교육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다은·광주시 남구 칠석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